

브라질의 대안사회운동: MST(무토지 농민운동)의 자율(autonomia)정치*

최금좌(한국외국어대학교)**

- I. 들어가는 글: “새로운” 사회운동, 시민사회, 국가
- II. MST: 저항과 투쟁 역사
 - II.1. 군사정권과 농민운동의 후퇴(1964-1978)
 - II.2. MST의 탄생배경(1979-1984)
 - II.3. MST의 “영토화”(territorialização)(1985-현재)
- III. MST: 공동체내에서의 자율(autonomia)정치
 - III.1. MST의 조직구조
 - III.2. 토지에 남기 위한 투쟁: 가족농 중심의 자급자족 농업에서 협동조합으로
 - III.3. 캠프생활과 투사양성
- IV. MST: 제도권 정치로의 진출
 - IV.1. MST의 PT와의 연계
 - IV.2. MST와 룰라 정부의 토지개혁정책
 - IV.3. 다른 운동과의 연대모색과 21세기 투쟁방향
- V. 결론

I. 들어가는 글: “새로운” 사회운동, 시민사회, 국가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사회운동에 대해, 칼데론(Calderón)과 같은 학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 이 논문은 2006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23-B00024).

** Keum-Joa Choi(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Portuguese(Brazilian), felizchoi@komet.net), “Brazil’s Alternative Social Movement: the Politics of MST’s Autonomy”.

정치구현 부상”, “새로운 사회 권력 형성 건설”,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율” 그리고 “대안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이동”으로 정의한 반면(1992, 24, 28), 알바레스(Álvarez)와 다니노(Dagnino)와 같은 학자들은 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목적이 “자신의 문화정체성 확립”에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과거 전통사회운동이 “강한 국가나 정치권력을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이 새로운 사회운동은 정치·사회 분야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구축에 운동의 의의를 두며, “지배정치문화 변화”운동(Alvarez et al. 1998, 9)과 “새로운 연대”(sociabilidade) 운동(Dagnino 1998, 52)을 전개하고 있다(Calderón et al. 1992, 23).

그런데 헬만(Hellman)과 다니노와 같은 학자들은, 이 새로운 사회운동이 국가와 정당을 불신하며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국가나 정당과는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주장한다(Hellman 1992; 1995; Dagnino 1998, 56).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정당과 거리를 두지 않는 브라질의 MST(Movimento Sem Terra, 무토지농민운동)와 같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출현을 간과했다(Petras and Veltmeyer 2001).

브라질의 농민투쟁은, 군정시절인 1970년대 후반 도시노동자들의 파업물결에 힘입어 범국가적인 노동투쟁으로 발전했다. 브라질 농민투쟁은 “야누스의 얼굴”을 한, 브라질 사회의 암울한 현실-세계경제 규모 9위를 자랑하지만, 남미 최대의 빈부의 격차와 인간개발지표(69위)는 15%의 문맹률, 인구의 20%가 월소득 100달러 미만, 대도시의 슬럼가, 빈번한 납치사건과 정치엘리트의 부패-속에서, 민주화운동 이후 정부에 대한 정치적 투쟁으로 변화·확대되었다. 1984년 탄생한 MST운동에 세계가 주목한 이유는 이 운동이 CUT(단일중앙노조)와 함께 현 브라질 여당인 PT(노동자당) 형성에 주춧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룰라의 대통령 당선(2002년10월)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토론하기 위한 ‘세계사회포럼(WSF)’ 개최(2003년 1월)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그람시의 헤게모니이론을 도입하여, MST의 국가(브라질)와 정당(PT)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람시의 국가

와 정당에 대한 개념은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 전략을 분석함에 있어서, 특히 사회적 지배관계를 기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브라질의 MST와 같은 운동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람시의 확장된 국가 개념-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구분-을 사용하여,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계급권력의 복잡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그람시의 정치사회란 국가의 입법·사법·행정부를 구성하는 기관들로 형성되며, 그 기관들 사이에 행해지는 행위, 즉 “제도정치”내에서 행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란 교회, 노동조합, 회사, 학교, 매스미디어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기관들은 끊임없이 부르주아 문화와 가치를 생산하고 또 재생산해 낸다. 그런데 시민사회는 정치사회와는 다르게 시민들의 협력과 동의를 구하는 중요한 공간이 된다.

그람시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에 대한 구분뿐만 아니라, 정당의 역할을 중시했는데, 그의 정당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를 형성하는 “현대의 군주”이다. 즉 정당은 기존 지배계급이 아닌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대중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것으로, 지식인, 정당, 대중이 밀접하게 연결되었을 때 기존 지배계급에 대항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정당이란 혁명적 대항 체계모니를 일으키는 기폭제이자 선동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당이란 대중투쟁을 이끌거나, 그것과 동반하는 투쟁의 의미를 부여하여 하층계급의 체계모니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당은 정치사회에서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적극 행동하여,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정치화된 시민을 탄생시킨다. 따라서 정당의 역할은 투사나 일반 개인에게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그들을 정치화시키며, 그 과정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강화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당도 제도정치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민중은 정당의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이 어떠한 것이며, 또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학습하게 된다(그람시 1975, 428, 447).

그람시는 사회운동을 “그들의 구성원들을 정치화시키고, 그들 조직과 시민사회 속에서 그리고 제도정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MST의 경우 사회적 동원을 사용하여 국가의 행위나 정책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MST가 추구하는 사회운동이 그의 사회운동에 대한 정의와 일치한다는 가정 하에 MST의 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MST의 저항과 투쟁 역사를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자율적 농촌공동체를 형성해 내었는지, 그리고 이 자율적인 정치적 구조는 어떻게 그들 구성원들을 정치화시키고, 동원을 용이케 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운동초기 브라질 남부지방선거에서 나타난 PT정당과 연계한 후보의 승리가 무토지 농민들을 정치화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전략이 공동체 수준에서 참여 예산제와 같은 민주주의 확립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21세기 MST 투쟁방향이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II. MST: 저항과 투쟁의 역사

원래 ‘무토지 농민’(sem terra)이란 용어는 1970년대 브라질 남부에서부터 사용되었다. 무토지 농민이란 남의 땅을 무단 점거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들(posseiros), 임대차 농민들, 대농장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assalariados ruins),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농촌의 비숙련노동자들을 포함하는데, 오늘날 이 용어는 사회적 계급을 지칭하게 되었다. 군정의 산업화 정책은 도농간의 빈부의 격차를 초래하여, 농촌 농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화시키고 소외시켰다. 그런데 이들 농민들의 비참한 삶에 관심을 보인 곳은 유일하게 가톨릭교회의 진보주의 진영이었다. 가톨릭교회는 브라질 전 지역에 걸쳐 존재하는 교구(Pastorais sociais)와 교회 기초공동체(CEBs: Comunidades Eclesiais de Bases)의 활동을 통해 농민들의 현실을 직시했다. 그리고 그들을

정신적·물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톨릭 토지사목회(CPT: Comissão Patoral da Terra)를 설립했다. 그 결과 무토지 농민들은 자신들의 토지개혁을 위한 투쟁이 도시의 노동운동처럼 노조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토론하게 되었다.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아무런 힘이 없어 보였던 무토지 농민들이 국제자본과 대적하기 위해 지역적 혹은 국지적 차원에서 농민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존재했던 농민전국조직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켰다.

II.1. 군사정권과 농민운동의 후퇴(1964-1978)

브라질 500년 역사에는 농민을 위한 토지개혁이란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1950년대 처음으로 농민연맹(Ligas Campesinas), 브라질 농촌노동자 연맹(Ultabs: União dos Laboratores e Trabalhadores Agrícolas do Brasil)¹⁾, 토지없는 농부들의 운동(Master: Movimento dos Agricultores Sem Terra)²⁾이 조직되어 “농업개혁”을 주장했다. 이에 보수주의자들

1) 1954년 Ligas Campesinas가 페르남부쿠(Pernambuco)州에서 부활하자, 브라질 공산당 PCB(Partido Comunista Brasileiro)는 市·州·전국 단위의 농촌 노동자들의 조합으로 Ultabs(União dos Laboratores e Trabalhadores Agrícolas do Brasil)를 창설했다. PCB는 노동자들과 농민들 사이의 정치적 연계 환경 조성에 힘을 쓰며, 브라질의 거의 모든 州에 조직을 두었다(이미 다른 농민운동조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페르남부쿠 州와 히우 그란지 두 술 州는 예외) 이 조직은 특히 상파울루 州, 파라나 州, 리우 데 자네이루 州에 침투했다. 사회주의 사상이 농민들에게 주입되어, 토지개혁운동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한 가톨릭교회는 히우 그란지 두 노르치 州에 농촌원조센터(Serviço de Assistência Rural)를 세웠다. 그리고 4만 명의 농민들을 끌어들여 12개의 조합을 조직했다. 가톨릭교회의 진보세력은 기초공동체에 파울루 프레이리(Paulo Freire) -농민들의 문맹퇴치와 정치의식을 교육시킨 브라질의 교육자)를 참가시켜 교육운동을 일으켰다.

2) Master(Movimento dos Agricultores Sem Terra)운동은, 1950년대 말 히우 그란지 두 술(Rio Grande do Sul) 州의 엔크루질라다 두 술(Encruzilhada do Sul) 市에서-비록 규모가 작음-약 300가정의 소작인들 퇴거가 발단이 되었다. 당시 주지사였던 레오넬 브리졸라(Leonel Brizola)가 이 운동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 운동은 7-8개의 농장을 점거하며 州차원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Master가 Ligas와 다른 점은 토지정착보다는 한 조각의 땅이라도 정복하려 했다는 점이다. 농민들은 1962년부터 대농장 가까이 캠프를 조직하며(주정부의 지원은 1962년까지) 토지를 획득해 나가기 시작했지만, 1962년 선거에

은 1964년 군사구테타를 일으키며,³⁾ 농민운동을 탄압했다. 군정은 농민운동이 공산주의자들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토지관련 문제가 국가적 난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65년 “토지법”(Estatuto da Terra)⁴⁾을 제정하고, 이후 제1농민연대(Primeiras Ligas Camponesas)를 발족시켰다.⁵⁾ 그리고 토지관련 투쟁 해결방안으로 농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별도의 해법을 제시했다(Fernandes 2000, 43).

그런데 군정의 농업정책은 토지개혁대신 ‘식민화정책’과 ‘농업현대화정책’이었다. 식민화정책은 남부의 농민들을 북부와 중서부로 이동시켜 농민조직의 와해와 무토지 농민 양산을 초래했고, 농업현대화정책은 가족농보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대규모의 농업생산 정책을 장려하는 새로운 농산업 발전모델을 추구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 브라질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 MST의 탄생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군사독재를 반대하는 투쟁분위기 확산과 경제적으로 1956년 쿠비체크 대통령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입대체산업 전략이 초래한 경제적 위기,⁶⁾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남미 전역에 확산되고 있었던 해방신학에 대한 지지기반 확산으로 인한 가톨릭교회의 입장변화였다.⁷⁾

서 PTB(브라질 노동당)이 패배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64년 군사쿠데타를 계기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 3) 군정에 의해 세 농민운동은 파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농민연합조직이 미약하나마 저항운동을 지속한 결과, 농민운동의 성격은 사회원조 조직의 특성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1971년 메디치(Medici) 대통령이 농촌 사회 안정 기금으로 지방 기금 펀루랄(Funrural)을 창설한 것과 관계있다. 따라서 오늘날 강화된 농민연합의 대부분이 아직도 펀루랄을 대표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 4) 이것은 연방정부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으로서, 토지소유과정에 대한 규정과, 토지개혁을 위한 합법적인 절차, 그리고 토지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법적개념을 정의했다. 그리고 과거에는 존재조차하지 않았던, 농민들에 대한 착취와 토지확장의 개념을 고려한 새로운 농장 단위-소농장 미니펀디오(minifundio)와 대농장 라티펀디오(latifundio)-를 규정하는 카테고리를 도입했다(Hamecker 2003).
- 5) 브라질의 군정은 농민운동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을 금지하고 탄압했다. 많은 운동 지도자들이 살해되거나 실종되거나 해외로 망명했다. 따라서 1964년부터 1984년까지의 군사정권 동안 탈토지 정책으로 농민운동은 약화되었고 이농현상이 촉진되어 도시 주변부 하층 노동자로 전락시켰다.
- 6) 1978년 이전까지 군정의 경제정책은 브라질 경제를 연평균 7-8%로 성장케 했다.
- 7) “교회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당에 당신의 토지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격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었지만, 오늘날에는 ‘천당에서 이미 토지를 갖고 있었던

또 다른 한편으로, 혹독한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도 도시노동자들이 1978년 브라질 대과업을 계기로 주요노동과업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에 농촌노동자들도 자신들의 임금투쟁을 곧 정부에 대한 정치투쟁으로 전환시켰다. 1970년대 후반의 농민투쟁 역시 토지점거였는데, 그것은 브라질 남부, 북부 그리고 북동부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농민운동의 성공적 확산은 물론 각 해당 지역의 농촌운동가들의 조직적 운동계획에 기인한 것이지만, 당시 그들의 산발적인 토지점거 운동진영 사이에는 어떠한 연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당시에는 전국차원의 네트워크조차 형성되지 않아 통일된 운동정책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1984년 ‘디레타스 자’(Diretas já!)운동을 계기로, 군정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확립의지를 보이자, CPT와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토지개혁을 위한 투쟁을 자신들의 투쟁 목표로 정했다.⁸⁾

II.2. MST의 탄생 배경(1979-1984)

1978-1979년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가난하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해방신학의 확산 속에서, 무토지 농민들은 CPT를 중심으로 조직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1979년부터 브라질 중남부의 다섯 개 州-히우 그란지 두 술(Rio Grande do Sul), 산타 카타리나(Santa Catarina), 파라나(Paraná), 상파울루(São Paulo), 마투 그로수 두 술(Mato Grosso do Sul)-에서 봉기하여 토지를 무단점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들 투쟁에 토지를 소유한 소농들과 임대차 농민이 합류했다. 이들의 산발적 저항 속에서 CPT는 농민투쟁운동을 하

당신은 이곳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로 인식을 전환했다.

8) 농민들의 투쟁 분위기 고조는, 농촌에 남기를 원했던 농민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들처럼” 도시로의 이주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1950년대 브라질 농촌인구는 전체인구의 64%를 차지했는데, 1970년에는 44%로 그리고 1998년에는 22%로 하락했다. 이 비율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브라질에서는 매 십년마다 1,000-1,500만 명이 농촌을 떠나 신흥도시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1998년에도 농촌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여전히 도시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식토지개혁 프로그램은 미미했다.

나로 통합하려는 시도로 1982년 7월에 파라나州 메디아네이라(Medianeira)市에서 첫 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토지획득 투쟁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민운동을 전국으로 확대시키기기 위해 9월에는 고이아스(Goiás)州 고이아니아(Goiânia)市 모임에서 임시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1983년 두 번의 모임을 더 가진 뒤, 1984년 1월 22일에 파라나州 카스카벨(Cascavel)市에서 MST를 정식으로 발족시켰다.

제1차 전국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브라질 총 27개 州 중, 16개 州를 대표하는 1,500명의 농민대표들이었다. 그들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법칙을 내세우며 운동의 목표를 세웠다. 첫째는 전국수준에서 대중운동을 조직·대표하며, 둘째는 그것을 통해 농민의 의식을 깨우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브라질의 모든 농민들이 생존을 위한 농토획득 투쟁, 토지개혁 투쟁, 그리고 좀 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MST의 첫 정착지는 엔크루질라다 나팔리누(Encruzilhada Natalino)였다. 군정의 무차별적 탄압으로 정착자들은 일정지역의 제한된 생활속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전개했다. 우선 분과위원회들을 조직하고 곧이어 식량, 보건, 의사소통, 협상 등을 위한 소분과위원회들을 조직했다. 그리고 동시에 부서간 정치·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아르치쿨라성(articulação, 거점확보)⁹⁾을 구축했다(Fernandes 2000, 55). 이러한 과정을 통해 MST는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페르난데스는 이를 “영토화”(territorialização)라 규정했다(Fernandes 2004).

II.3. MST의 “영토화”(territorialização)(1985-현재)

MST의 “영토화”란, 점거한 토지에 가족농을 부활시킴으로써, MST에 가장 기초적인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형성함과 동시에, 그것을 거점으로 또 다른 토지점거를 위한 투쟁을 재생산해내는 것이다. 바로

9) 아르치쿨라성(articulação)이란 원래 두 개의 뼈를 잇는 ‘관절’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의 역할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III.1. MST의 조직구조”를 참고할 것.

이러한 독특한 운영방식 때문에 MST는 그동안 토지를 위한 투쟁공간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Fernandes 2004).

MST는 처음 남동부를 영토화하고, 곧바로 북동부의 아마존 혼도니아(Rondonia)주와 중서부의 고이아스주까지 확장해 나갔다. 그런데 MST의 지도자들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전략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었다. 그들에게 상호소통을 위한 환경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에 대한 인식, 토지몰수와 착취적 상황에 대한 의식화, 그리고 무토지 농민들의 정체성 확립을 의미했다. 따라서 MST 구성원들은 모임을 통해 ‘산업발달로 인한 농촌의 토지문제,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농민의 삶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를 기본으로 깨달으며, 정치세력과의 역학관계, 아르치쿨라성 구축, 그것들의 연계를 생각하게 되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토지획득을 위한 투쟁에 무토지 농민뿐만 아니라 소농들도 투쟁의 주체로 참여한다. 이는 브라질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특히 국경지대의 소농들 때문이다. 국경지대의 소농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독점적으로 영토를 확장시켜왔지만, 1990년 이후 자본을 앞세운 대농장주와 기업가들의 개간면적확대로 오히려 착취당하는 계급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이유로 MST 토지투쟁의 대상은, 주로 자본의 영토화가 이미 이루어진 곳, 즉 거대자본이 소유한 대농장이나, 협상이나 수탈대상이 되는 토지, 혹은 휴경지가 된다. 따라서 그들의 투쟁과정과 정착과정은 “토지가 협상이나 수탈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토화 과정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두 계급의 토지에 대한 시각적 차이가 드러난다. 즉 대농장주들, 기업가들 혹은 사기로 남의 토지를 갈취하려는 자들은 무토지 농민들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을 합법적으로 갈취하려드는 반면, 무토지 농민들은 이들의 토지를 무조건 무단점거 하려한다.¹⁰⁾

10) 홉스봄(Hobsbawm 1995)은 농민들이 농토를 회복하거나 혹은 노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를 재정복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첫째, 원래 수십년 동안 농민들 소유였으나 자본의 영토화로 농민가족들이 착취됨에 따라 소송이나 분쟁 대상이 된 토지; 둘째, 농민이 점거한 국가소속의 국경지역 토지(귀속 토지)를 대농장주가 다시

MST에게 무토지 농민들을 정착시킬 토지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언제나 절박했기 때문에 MST의 “영토화”는 브라질 전 지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팽창되었다. 이때 MST는 자신들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토지마련 모델을 구축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났다. 한편으로는 변화가능성에 대한 희망으로 일관된 투쟁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운동 내에 존재하는 모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MST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경제·사회 조직-협동조합이나 친목단체, 혹은 학교를 연계로 한 대중조직-으로 그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MST는 자신의 활동을 위해, 여러 학자들의 추측과는 달리 노조나 정치정당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페르난데스는 그것을 엄밀한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사회운동”이라 보기 어려우며, 대신 그것을 “사회-영토화운동”(movimento sócio-territorial, 혹은 sócio-territorialização)이라 정의했다(Fernandes 2005, 326).

이렇게 옛 조직형태와 새로운 조직형태로 건설된, 다중적이며 복합적이고 또한 혼합된, 새로운 구조를 갖춘 MST는 이 사회-영토화 운동을 통해 무토지 농민들의 토지점거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다른 MST를 끊임없이 재창조해 낼 수 있었다(Fernandes 2000, 290).

III. MST: 공동체내에서의 자율(autonomia)정치

츨스키가 브라질의 MST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흥미로운 민중운동”이라고 평가한 것은, 그것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가능한, 가장 중요한 풀뿌리 조직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갈취한 토지; 셋째, 대농장 토지(ocupação de latifúndios)-로 분류했다. 그 중 그의 학문적 관심은 첫 번째 경우로, 그 대표적인 예가 브라질 아마존(Amazônia)주이다. 왜냐하면 그곳의 소농소유의 토지 상당부분은 대농장주와 기업인들에 의해 몰수되거나 갈취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농장주의 관심은 주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로, 귀속 토지나 대농장의 토지를 토지점거 대상으로 삼고 있다.

1984년 탄생한 이 운동이 지금까지 꾸준히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투쟁과정 속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운동운영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농촌공동체”를 건설해 내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크게 기여했는데, 하나는 운동의 재정정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 즉 간부/핵심인물(cadres) 양성이다(Vergara-Camus 2009).

MST의 재정정책은, 다른 좌파운동이나 좌파정당이 재정적으로 다른 기관들이나 혹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의지하는 것과는 달리, 운동에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들로부터 충당한다. 구성원 중 남들보다 먼저 운동에 참여한 농민들이, 즉 토지를 분배받고 은행의 신용대출로 생산이 가능한 농민들이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책임지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원이나 생산하는 곡물을 쿼터에 따라 일정 부분을 내놓고 있다.

MST의 지도자 양성정책은 운동의 자율을 위해 간부/핵심인물들의 경작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리더십은 결정적 순간에 발휘되는데, 그것은 권위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군사정책과는 달리 의사소통을 통한 전 구성원의 공감대형성을 통해서이다. 즉 MST 구성원 전체가 어떤 주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지도자들은 일정 기준에 따라 구성원들을 설득하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결정을 연기한다(Harneck 2003, 13).

그리고 MST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지속적 연대이다. 그들의 지역적·전국적·국제적 연대 활동은 브라질 정부로부터 기금이나 정책적 혜택을 이끌어 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국내외의 연대그룹으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하지만 자율을 강조하는 그들의 운영방식은, 지역 공동체의 협상이나 결정에 전혀 외부의 “간섭”을 허락지 않고 있다.

III.1. MST의 조직구조

MST의 실제 조직구조는 세 분야-대표성 차원의 심리, 분야별 활동영역, 그리고 횡적 전통 조직-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조직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활동한다. 첫 두 분야는 농민운동 조직형태와 다른 제도들을 존중하여 폭넓은 사고를 반영하여 나온 결과이고, 세 번째 분야는 형식적 제도들에 대한 전통적 형태를 유지한 것이다(Stédile; Fernandes 1999).

정치적 대표성은 서로 다른 다양한 단위인 핵심지도부들, 위원회들, 지휘부들, MST 모임들, 그리고 전국대회에 의해 형성된 공간들을 하나로 묶어낸다. 핵심지도부들은 무토지 농민들의 캠프와 정착과정에서 형성된다. 즉, 처음 캠프를 세울 때와 정착할 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조정자 집단을 뽑는다. 그리고 뽑힌 조정자 집단이 지역차원의 조정자 집단을 뽑고, 또 다시 지역 조정자 집단이 더 높은 대표성 차원의 위원회를 뽑는다. 이 때 그들의 소모임인 핵심지도부 위원회 지휘부가 정치포럼으로 기능하는데, 이것이 바로 MST 조직의 우수성을 드러낸다.

MST 모임과 전국대회는 통합적이고도 구조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MST 모임은 MST의 모든 조직적 차원에서 실현된다. 2년마다 열리는 전국 모임을 예외로, 해마다 지역 모임, 그리고 州 단위의 모임이 열린다. 이러한 모임은 정치적 결정의 공간으로, 운동의 행동을 결정하여 매 5년마다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기본 단위인 핵심지도부로부터 MST의 전국대회까지, 모든 수준과 차원에 조정 위원회와 지휘부가 있다. 정치적 계획을 결정하는 주요 포럼은 모임과 대회이다. 이러한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운동의 주체로서 자신을 참가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반드시 집단에 의해 인정을 받는 인물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착이나 캠프진영의 기본 핵심지도부가 이러한 과정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추천한다.

이러한 다른 공간 속에서 정책들이 심의되고 또한 활동 부서와 부

서 당국에 따라 실시된다. 활동부서와 부서당국은 행정적이고 집행적인 특징을 가지며, 캠프와 정착과정에서 사회-영토화 발전프로젝트를 실현할 책임을 갖는다. 활동부서 역시 다른 차원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교육부서는 지역차원에서부터 조직되어 캠프와 정착지에서는 물론 지역이나 州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육부서는 캠프와 정착지의 정책개발을 위해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서 내에서는 농·목축업, 교육, 보건 그리고 사회 하부구조의 발전프로젝트와 관계있는 전통적 협의 조직체가 횡적으로 연대하여 서로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특이한 부서 간의 상호작용은, 옛날 방식이 하나의 부서 조직을 고립화시키는 것과 달리, 부서 조직을 하나의 거점인 아르치쿨라성으로 변화시킨다. 즉 이 아르치쿨라성 속에서 부서들의 행위는 영토화되고 또한 다차원적인 실습을 통해 실용화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교육의 경우이다. 교육은 영토화를 위한 전제로서 무토지 농민들을 박애주의자로 양성해내며, 기술제공을 통해 그들을 위한 정책을 세운다.

부서별 활동의 공통점으로는 집단적 특징을 꼽을 수 있다. 문화집단과 국제관계집단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는데, 이 두 집단의 특징은 횡적 연계이다. 신비주의(mística)로 포장된 문화집단은 여러 분야의 구성원들이 횡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한다. 그리고 집단적 국제관계를 담당하는 부서는 특이하게도 국내위원회인데, 이것 역시 횡적연계를 강조한다.

MST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조직구조 속에서 서로 다른 차원의 조직과 연계하여, 자신의 조직을 강화시키는 한편, 동시에 또 다른 거대도전을 시도한다. 따라서 MST에게 무토지 농민은, 단순히 각자가 속해있는 부서별 발전이나 보상정책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농민으로 재탄생되기 위해 재사회화 되어야 할 과정에 있는 대상이 된다.

III.2. 토지에 남기 위한 투쟁: 가족농 중심의 자급자족 농업에서 협동조합으로

토지점거뿐만 아니라 토지에 남기 위한 투쟁 또한 쉽지 않다. 한 곳의 정착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선 농업 비즈니스가 조정하는 적대적 시장 속에서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의 시작을 의미한다. INCRA¹¹⁾의 연구도 이러한 투쟁이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Cardim, Vieira and Viégas 1998, 24).

MST 정착민들은 토지에 남기 위한 투쟁에서, 고정적 수입의 근원이 되는 경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우선 자급자족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곡식과 채소 재배를 시도한다. 그들의 농업 생산 목표량은 정착한 가구의 수에 따라 결정되지만, 결과는 언제나 목표량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화폐에 의지하지 않고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진정으로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이 이미 도시와 농촌에서 굶주림과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MST의 중요 원칙 중 하나는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구조적 투쟁-가족농을 바탕으로 한 농업생산이 자본주의적 관계를 재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초월하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MST의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도로, 최근까지 자체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MST의 토지점거방법-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을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 자급자족 강조-은 그 가치를 높이 인정받고 있다.¹²⁾ 그런데 이러한 MST의 자급자족 농업경영은 정착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급자족을 위한 두 가지 목표-첫째,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를 만들어 낼 것 (MST 1991);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매력적인 대안모델을 제

11) 토지식민화와 토지개혁을 위한 국립연구소(INCRA: Instituto Nacional de Colonização de Reforma Agrária)

12) 하지만 자급자족에 의한 시장효과의 완화라는 관점 때문에, 정부의 기관들이나 정치가들 혹은 일부 사회학자들로부터 비판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

시함으로써 조직적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집단형태를 발전시킬 것-를 세웠다(Martins 2000, 38-39; Singer 2002).

그런데 협동조합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왜냐하면 정착자들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가족농을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MST는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농민운동과 마찬가지로, 정치화된 자율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는 것보다 대안 생산방식을 만들어내는 데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날 브라질의 시장개방은, 지속적으로 널뛰는 농산물 가격변화와 함께 소농들을 다국적 기업과의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내에 MST의 주요목표는, 소농부문의 규모확대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국가가 토지개혁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농업신용대출과 기술지원 문제에 직면한 농민 정착자들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Stédile in Amaral 2003, 6).

MST의 전통적 정치 전략은 신자유주의 국가정책들에 대항하는 민중세력을 동원하는 것과 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실행과 개선을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영캠프지보다 정착지에서 높은 수준의 동원을 유지하는 것은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비록 정착 초기 구성원들은 극도로 정치화되는 성향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국가에 자신들이 필요한 인프라구축에 압력을 행사하지만(Romano 1994), 정착지에 길이나 학교, 그리고 전기시설 확충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하부구조가 완성되게 되면, 그들의 관심은 집단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인 것에 더 집중된다. 이것은 정착지에서의 생활이 자본주의 경제의 주변부인 야영캠프 생활과는 대조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에 더 통합되어가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할 때 동원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MST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는 정착지에서의 의사결정권과 대의구조들을 유지하는 것이다(Abramoway 1994).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정착지에서 일부 구성원들은 MST를 “더 이상 자신들이 속한 하나의 사회운동이라기보다는 정착민을 대

표하는 하나의 서비스 조직” 즉, 조합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향은 더 오래된 정착지-과거 그곳에서의 토지를 위한 투쟁은 더 비공식적이었으며, 또한 개인적 리더십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Wolford 2003a, 210). 그러나 의사결정과 대의구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 정착지에서는, MST가 구성원과 국가 사이에 단순히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을 위한 교육방안 채택에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의료혜택이 어떠한 철학적 원칙에 의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감독관 역할을 잘 수행해내고 있다(Martins 2000, 38).

그 좋은 예가, 히우 그란지 두 술州 사란디(Sarandi)市 아노니농장(Fazenda Anoni) 공동체 내의 초등학교 건설이다. MST는 공동체 내에 초등학교를 건설하기 위해 수년간의 투쟁 끝에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얻어내었다. 주정부는 공동체 내에 세워질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이 교육부의 규범과 지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MST는 주정부의 교육부 장관과의 협상을 통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교육 프로그램을 통과시켰다. 그것은 정착자들 자신들이 수 년 동안의 투쟁과 야영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 문맹퇴치와 정치의식 고양을 강조한 파울루 프레이리(Paulo Freire)의 교육이념에 따른 것이었다. 농촌생활을 강조하는 이 프로그램은 농사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농민양성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텃밭에서 모든 종류의 야채를 직접 재배토록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MST는 州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정착지 내 일정 수의 사람들을 교사로 임용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쉬쿠 멘데스”(Chico Mendes)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학교의 운영주체는 학교 관련 교육위원회 위원들이지만, 학생들 역시 교사나 학부형처럼 자신들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Caldart 1997).

정부가 MST의 정착과 교육 시스템에 재정적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감독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프로그램들이 정착지내에서 상의하달[上意下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MST의 주인, 채권자, 교육자, 감독관 노릇 대신, MST지도자들

과 정착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그것이 수용되도록 제안할 뿐이다 (Wolford 2003b, 513). 바로 이러한 경우들이 MST 공동체내에서 정착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것을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공동체로 유지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공동체란,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그것들을 총회에서 의결토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실행한다.

일반적으로 MST 정착지 내에서의 정치적 구조는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와 투쟁적 동원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MST는 운영상 자신의 국가 재정의존도를 빠져리게 통감하고,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통적 정치권력 공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갖기 위해 제도권 정치권내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III.3. 캠프생활과 투사양성

토지 점거는 어렵고도 기나긴 투쟁의 끝이자 동시에 또 다른 투쟁을 위한 시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ST 구성원들의 높은 수준의 참여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첫째는 자신들의 아이디어, 실천, 상징, 슬로건, 의식들을 잘 조합하여 만들어 낸 “상상된 공동체”이며; 둘째는 첫째보다 더 중요한, 국가와 정착민 사이에 효과적인 중재자 역할이며; 셋째는 참여와 동원을 독려하는 조직구조의 유지이다(Wolford 2003b, 501). 따라서 무토지 농민들이 이 정치적 구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상상된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들의 구성원보다 훨씬 더 동원하기 쉬운 “자율적인 공동체”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와일더 로블스(Robles 2000, 679)는 운동이란, 배타적 권력에 대항하여 가난하고 억압받은 자들이 정치적 단위를 어떻게 조직하고 자신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배우는 “자율적 공간”이라면, “MST가 제도적 소외나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단위를 건설하는 것”

이라고 주장한다. 무토지 농민들은 야영생활과 토지점거를 통해 얻은 새로운 경험과 실천을 통해, 가난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정치화된 세력으로 변하고 있다. 즉 완전히 정착하기 이전의 야영캠프생활은 매일의 일상을 지나칠 정도로 정치화시키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Romano 1994, 257; Fernandes 2005).

무토지 농민들은 자본에 대항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무산계급으로 떨어지는 것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을 “정치-사회화”한다(Fernandes 2005, 321). 즉, 그들은 이 공간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투사로 거듭난다. 따라서 무토지 농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한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MST의 규칙과 가치, 그리고 목적을 공유하며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서로 같이 동거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하나의 농촌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더 넓은 무토지 농민 공동체와의 연계된 “소속감”은 그들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모든 종류의 모임과 운동에 참여하도록 만든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속한 야영캠프내의 조직적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모임에 참여하다가, 나중에는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모임과 또한 일반운동에 관한 모임에도 참여하며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넓혀나간다. 이것은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여러 종류의 작은 위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Almeida and Ruiz 2000, 16; Fernandes 2000, 184-185).

그러나 MST는 실제 그들이 영토화한 영토를 경영하는 방법이 다른 조직과는 현저히 다르다. MST 운영방식에 있어서 가장 높이 살만한 가치는, 야영캠프와 정착과정에서 가장 정치적인 결정을 해당 지역의 풀뿌리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데에 있다. MST의 높은 제도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구성원들 스스로가 어디에 캠프를 세울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정착할 것인지에 대해 관할기관(市정부, 州정부, 연방정부) 및 경찰 책임자들과 협상하여 그 조건과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공통된 특징은 ‘빈번한 정착지 이동’인데, 이것 또한 그들 스스로

가 결정한다.

캠핑기간동안 그들은 캠프 안과 밖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의 정착지에서 여러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행동을 계획하고, 동원과 조직방법을 습득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에서 부르주아 헤게모니와 충돌한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문제나 경제문제를 정치화시키지 않는 대신, 야영캠핑 기간 동안 행해진 협상 토론 결정 행동들은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정치화시키며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들이 자신의 권리와 힘을 인지하게 되면, 국가 권력 기관의 여러 수준에서 협상을 벌이거나 혹은 대치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국가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Fernandes 2000, 174; Hammond 1999, 482).

MST는 다른 많은 운동과 정당의 취약점이 지도자들의 수 감소에 있다고 보고, 공동체에 강력하게 연계된 집단적 리더십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려는 의도로 개발된 원칙으로, 만일 지도자들이 국내여행을 해야 할 경우, 비행기 대신 가능한 한 버스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몇몇 사람만이 외교적 경력을 쌓는 대신, 여러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다. MST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이들 지도자들이 누구건 간에 예외 없이 매 2년 마다 자신들의 활동을 평가받게 하고 있는데, 만일 전체 그룹이 아직도 그의 활동이 운동에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면 그들의 임기는 다시 갱신된다. 농민운동의 특성상 MST 공동체 내에서 강한 남성우월주의적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참여비율은 높다. 2001년 상위계급의 23명 회원 중 9명이 여성이었다.¹³⁾ 이 여성들은 쿼터제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질에 의해 선출된 경우이다. 캠핑나 정착지에서 여성들이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자

13) 아이가 딸린 기혼여성이 국가차원의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은 9명이나 된다. 그 중 2명은 기혼이지만 자녀가 없고, 다른 그룹은 동반자와 별거한 여성들이거나 미혼 모들이다.

로서 점진적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의 강좌나 회의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소질을 계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들의 지도력이 발휘된 경우는 그리 뚜렷하지 않다.

이러한 정치적 수업과정을 통해 MST는 자신의 정치적이며 사회적 조직을 강화시키는 투사들을 끊임없이 양성해 낸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행과 조치는 농민들을 사회운동으로 끌어들이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만일 어떤 농부가 자신의 토지를 빼앗기거나 혹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그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극복 방안은 MST의 토지점거에 참가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들의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토지점거를 통해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하지만 브라질 사회의 일반인들은 MST의 활동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단지 MST의 무토지 농민들이 토지를 점거하거나 혹은 고속도로 옆에 캠프를 세울 때에만 겨우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무토지 농민들의 토지점거 행위는 현실참여이자 동시에 투쟁과 저항의 표시이다. 따라서 그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만 그들의 정치·사회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IV. MST: 제도권 정치로의 진출

브라질 농민운동의 역사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국가, 정당, 민중주의적 정치인들, 가톨릭교회 개신교들로부터 비교적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자율성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농민운동이 위의 어떠한 그룹과 동맹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Welch 1999, 222-227, 308-316, 328-331). 1964년 군사 쿠데타 발발이후, 군정이 잔혹하게 공산주의 지도자와 진보적 농촌 활동가들을 탄압했을 때, 당시 농민조합은 농촌 노동자들과 소농들

에게 일련의 국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배의 역할”을 담당했다(Houtzager 1998, 117-122). 하지만 1980년대 군정시대가 종말을 맞이하면서 생긴 정치적 공백은 농민조합의 민주화를 다시 회복시켰다. 따라서 정당과 정치인들과의 동맹에 대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다시 대두되었다. 이는 MST 구성원들이(CUT와 PT를 창설한) 새로운 노조주의 운동과 비슷한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토지를 위한 투쟁을 위해 어떻게 PT의 선거와 연계시켜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토론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MST가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하는 시민사회(농촌 노동자 연맹, 소농들의 조직, 교회 등의 연합세력)와 정치사회(정부 기관이나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이 두 세력으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다(Wright and Wolford 2003, 41; Fernandes 2000, 83-93; Almeida and Ruiz 2000, 26).

MST가 동원한 운동 대부분-토지, 신용대부, 주거, 교육, 건강관리/의료 서비스, 인프라 건설을 위한 운동들-은 시민사회 내에서 수행되었다. 그리고 MST는 국가의 제도와 직접적으로 대적하거나 압력을 가하면서 제도정치를 문제 삼았다. 비록 MST가 한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로 총선이나 대선에서 누구를 찍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 구성원들 대부분은 브라질 사회운동을 이끄는 다른 행동가들과 함께 PT야 말로 사회운동을 대변하는 정치적 목소리라고 여기고 있다(Keck 1992).

IV.1. MST의 PT와의 연계

MST가 전략적으로 제도정치와 연계하여 정치적 전략을 사용한 대표적 경우는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초반 상파울루주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무토지 농민 정착에는 PT 출신의 상파울루주 주지사 프랑쿠 몬토르(Franco Montor, 1983-1987)로부터의 지지와 혜택을 받음으로써 가능했다. 그리고 히우 그란지 두 술주에서 지주들의 토지몰수 과정이 가속화된 것은 히우 그란지 두 술주 주지사 올리비우 두트라

(Olívio Dutra, 1998-2002)가 좀 더 혁신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재정적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처럼 선거에서 승리한 PT 출신의 일부 정치가들은 MST의 투쟁방법과는 아주 다른 성과를 만들어내었다.

사실 MST는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중앙 선거에 내보내지 않는다는 내부원칙을 세워 그들이 어떠한 정부의 직책이라도 수락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市단위나 州단위의 제도정치권 내에서는 그것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MST 투사들은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PT후보와 함께 일을 한다. 그리고 MST 구성원들은 PT의 당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하지만 MST는 원칙적으로 PT와 조직적 연계를 반대한다. 많은 MST 지도자들은 풀뿌리 운동가들과 마찬가지로 PT와의 협력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것은 PT가 정권을 잡았을 때 운동 전략으로부터의 이탈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MST의 투사 아르만두 다 실바(Armando da Silva)는 히우 그란지 두 술州 혼다 알타(Ronda Alta)市的 마칼리(Macali)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의 주장-“만일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시위를 할 수 없어 우리의 상황은 더 불리해진다. 하지만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는 은행신용대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할 수 있다”-은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남부의 더 오래된 정착지에서는, MST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착자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PT정당의 기치아래 지방정치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로 결정했다(Wright and Wolford 2003, 321). 그 결과 파라나州 파라나시티(Paranacity)市, 그리고 히우 그란지 두 술州 혼다 알타市와 폰탕(Pontão)市에서 MST 투사들이 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었고, 상파울루州 수마레(Sumaré)市에서도 MST 지도자가 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히우 그란지 두 술州에서는 유명한 두 명의 농민운동가 디오닐손 마르콘(Dionilson Marcon)과 프레이 세르지우 고르헨(Frei Sérgio Görge)이 PT당 소속 州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MST 지도자 출신의 정치가들은 토지개혁과 그와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 공식적 대변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MST는 농민지도자들이

꼭 정계에 진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들은 집단토론 끝에, 자신들이 속한 市나 州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후보자들이 MST의 대표자격이 아닌, 즉 개인의 자격으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은 정착자들이 MST 출신 정치가들의 정치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기도 하고, 또한 더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월급의 일정 부분을 내놓도록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MST의 전국 지도자 주디트 스트로자키(Judith Strozaki)는 MST회원이 지역정치나 중앙정치에 참여할 때 반드시 “MST의 기본임무, ‘농촌과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조직해야 한다’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사고의 배경은, 정치가들이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더 용이하며, 공공의 토론에 간섭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또한 시위나 정치적 집회, 그리고 모임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것은 그람시의 용어로, ‘제도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동원과 조직의 목적에 부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하지만 주디트 스트로자키는 “일단 정치인이 되면, 제도적 장치만을 움직이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든다. 다른 일에 시달리려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조직할 시간은 거의 없다.”라고 푸념한다.

현재의 농민운동은 군정시대 농민운동과 비교해 볼 때, 국가와 정당으로부터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MST는 PT와의 동맹으로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는 것이 동원전략에 유효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제도권 정치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나름대로 문제가 중대한 국면을 맞이했을 때이다.

IV.2. MST와 룰라 정부의 토지개혁정책

<표 1> 브라질 지역별 토지점거 건수 현황(1995-2009)

연도 \ 지역	북부	북동부	중서부	남동부	남부	합계
1995	-	-	-	-	-	145
1996	-	-	-	-	-	397
1997	-	-	-	-	-	455
1998	-	-	-	-	-	446
1999	-	-	-	-	-	502
2000	12	94	53	50	27	236
2001	16	36	45	44	17	158
2002	3	35	13	34	18	103
2003	6	87	38	46	45	222
2004	9	134	48	97	39	327
2005	18	66	47	61	29	221
2006	14	91	33	111	17	226
2007	17	120	21	116	24	298
2008	25	98	18	69	24	234
2009	7	32	7	53	5	104*
총합계	127	793	323	681	245	2,169

출처: 농업발전부, Relatório da Ouvidoria Agrária

* 2009년 자료의 경우 6월달까지

룰라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무토지 농민들은 그의 토지개혁에 대한 깊은 신뢰로 토지를 위한 투쟁-점거 운동과 캠프 운동-을 증가시켰다. 비록 룰라가 토지를 위한 투쟁에 동의하지만, 그의 정부정책과 실적은 무토지 농민들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룰라는 자신이 직접 공약한 공약-40만 가구 정착, 50만 가구 지위 정상화, 신용대출을 통한 15만 가구의 토지구매-모두를 지키지 못했다(Oliveira 2006, 8).

룰라 정부는 자신들이 카르도주 정부보다 더 많은 가구를 정착시켰다고 주장한다. 즉 카르도주 정부가 연평균 65,548가구를 정착시켰

다면, 자신들은 연평균 81,430가구를 정착시켰다고 주장한다(Fernandes 2007, 17). 이에 올리베이라(Oliveria)는 룰라 제1정부가 첫 3년 동안 새로운 정착지에 정착시킨 가구 수는 정부가 주장한 245,061가구가 아니라, 그것의 1/3에 해당하는 89,927가구라고 반박한다. 왜냐하면 정부가 수력댐 건설로 인해 재이주를 해야 할 가구들을 두 번 집계했기 때문이다(2006, 21).

페르난데스는 올리베이라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브라질의 토지집중 현상을 고려할 때, 정착가구의 25%정도만이 정부가 대농장주로부터 몰수한 개인토지에 정착한 것이기 때문에 룰라의 토지개혁 역시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 걸음 후퇴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Fernandes 2007, 17). 따라서 토지개혁과 분배에 대한 룰라 정부의 제한적인 공약과 굵뚱 과정에 대해 MST 구성원들은 룰라 정부의 토지개혁에 대한 능력이나 의지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동안 룰라와 PT에 대한 지지가 과연 유효했는지도 반신반의하고 있다.

IV.3. 다른 운동과의 연대모색과 21세기 투쟁방향

대안세계화운동의 조직과 전략이 전통적 사회운동의 그것과 다른 점은, 후자의 조직이 위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중동원 전략에 기반하는 의회주의, 총파업주의, 봉기주의, 대의민주주의 등을 추구한다면, 전자는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중 참여전략에 기반한 직접행동주의, 탈상품화, 국제연대, 직접민주주의 등을 추구한다.

브라질의 MST 역시 대안사회운동으로 급진적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세력과 대항하기 위해 국내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왔다. 그들은 국내 네트워크야말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농민투쟁의 가장 핵심요소라고 생각한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농민들의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산발적 투쟁을 하나로 엮어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투쟁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과 농민들의 특성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합당한 의무부담이나 행동지침을 부여하고 있다(Marta Harnecker 2003, 13).

국제 농민조직 비아 캄페지나(Via Campesina)와의 연대를 계기로 브라질 비아 캄페지나(Via Campesina Brasileira)가 탄생했다. 이는 MST의 조직단위를 한층 더 진전시킨 것이었다. 브라질 비아 캄페지나는 토지개혁을 위한 새로운 투쟁방법을 다음과 같이 채택했다. 첫째, 과거 운동이 토지를 검거하여 가난한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데에 집중했다면, 현재 운동은 토지소유의 전환뿐만 아니라 생산방법의 변화도 추구한다; 둘째, 현재 농민들의 적이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국제기업이라면, 농민들은 자신들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도시 노동자들과의 연대에 더욱 힘써야 한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MST의 투쟁방향이 바뀌고 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 재배면적의 점차적인 성장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제 금융자본에 종속된 브라질 농업은, 미국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에서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다. 브라질이 생산해 내는 콩의 64%가 이에 해당된다.¹⁴⁾ 이에 MST의 지도자 질마르 마우로(Gilmar Mauro)는 “MST는 더이상 대중민주주의 수립만을 고집하지 말고, 자본을 어떻게 초월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DEBATE Socialista*, No. 3, 2008).

결론적으로, 과거 MST가 신자유주의의 확산 저지에 국내외의 다른 사회운동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서로 협동하고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가능한 대중민주주의 확립에 주력했다면, 오늘날 MST는 점점 더 위협으로 다가오는 자본에 대한 투쟁을 유전자변형 농산물 생산 반대운동으로 확장시켜 진행하고 있다.

14) 2009년 2월 11일, ‘바이오 기술 정보 위원회’(Conselho de Informações sobre Biotecnologia)가 밝힌 바에 의하면, 브라질은 2007년 15,800만 헥타르의 농지에서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생산했고, 그것은 세계 유전자변형 농산물 시장에서 12%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리고 ‘농업바이오기술의 습득과 적용을 위한 국제서비스 단체’(SIAAA: Serviço Internacional para a Aquisição de Aplicações Agrobiotecnológica(영어로, ISA-AA)에 의하면, 2008년 세계 유전자변형 농산물 재배면적은 전년도에 비해 9.4% 성장한 반면, 브라질의 경우는 5.3% 성장했다고 한다(MST, in Pastoral da Terra, janeiro a março de 2009).

V. 결론

지금까지 MST의 탄생과 발전과정, 그리고 그들의 자율적인 운영 방식을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에 대입하여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MST 구성원들은 운동참여 초창기에는 정치를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이었다. 하지만 야영캠프와 토지점거에 참여하면서 곧 정치화되었으며,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 사람들을 동원하여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적극 시민으로 거듭났다. 따라서 MST의 무토지 농민들에 대한 역할은 그람시가 공산당에게 노동자계급을 부여한 것과 같으며, 또한 PT가 1990년대 초까지 민중부문을 포용하며 구현해낸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5년 동안 MST가 이룬 성과는 구체적이다. 수 천 가구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수요-농업 신용대출, 기술지원, 초등 및 중등학교 건립, 건강클리닉 건립 등-를 충족시키기 위해 MST는 동원과 투쟁, 그리고 제도권 정치로 진출하며 재정재원 획득을 위해 싸워왔다. 그런데 MST가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농촌공동체를 광범위한 브라질 전역에 건설해 내었기 때문이다. 캠프와 정착지에서의 자율적인 농촌공동체에서 적극 정치적 행위자들은 자신들만의 정치적 구조를 중심으로 농민들을 조직하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다른 공동체들과 지역, 州, 전국 차원에서 동맹을 맺으며, 또한 국내와 국제적 차원에서 네트워크 운동을 전개해 왔다.

MST는 정치화되고 참여적인 구성원들을 양성해내고 유지해왔다. 하지만 농업생산조직의 대안형태를 만들어내는 데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농산물 시장의 개방은 정부의 신용대출 또한 어렵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정된 정부의 신용대출 예산은 주로 농업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브라질 농부들이나 소농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집단농업과 협동조합의 실패, 그리고 정착자들의 가족농에 대한

선호는, **MST**의 농업생산에 대한 도전방식을 아직도 정치적 조직과 동원이라는 자신들의 경험에 의존케 한다. 따라서 생존하기에 충분한 토지분배, 정착에 필요한 재원공급, 소농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투쟁방법은 무토지 농민들, 농촌 노동자들, 소농들을 동원하여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동원이 **PT**와 함께 제도적 정치에 전략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MST** 이중전략은 룰라의 제2정부 정책과 2008년 말 룰라의 **MST**와의 일방적 결별선언(*Brasil de Fato* 2008.12.22)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즉 **MST**는 2006년 대선에서 정당간의 연합을 통해 재선에 성공한 룰라를 도왔지만, 2010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MST**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있다.

첫째, 만일 토지개혁이 가속화되지 않거나, 혹은 농업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과연 **MST**가 **PT**와 연맹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인가? 즉, 토지개혁의 속도가 느리다면 **PT**와의 관계는 재고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권 정치로의 진출을 추구하는 **MST** 전략도 재고되어야 할 시점에 있는 것은 아닐까? 즉, 룰라의 정책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면 **PT**와의 결별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PT**에 참여하는 **MST** 구성원에게 점차 민감한 사안이 될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MST** 구성원이 **PT**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나선다면 그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MST**는 룰라의 통치기간 동안 **PT**에서 축출당한 멤버들이 새롭게 창당한 정당 **PSOL**과의 새로운 연계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룰라의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그동안 **MST**가 적극적으로 룰라와 **PT**를 지지한 것에 대한 환상이 깨진다면, 제도정치로의 진입전략은 제한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MST**의 미래를 좌우

할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MST**가 그들의 오랜 투쟁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자율 농촌공동체를 새롭게 건설해 나가며 그것들을 유지하는 데에 가장 집중할 것이라는 점이다.

Abstract

Historically marginalized Brazilian peasants started their struggle against the government and against neo-liberalism, forming the MST (Landless Movement / Movimento Sem Terra) in 1984 under the CPT (Comissão Pastoral da Terra)'s concern and financial support. The secret of their success of MST through their "socio-territorial movement" rests on the two facts: One is their self-sufficient financial principle; and the other is their principal for raising their militants in relatively autonomous rural communities organized around autonomous political structures that facilitate mobilization. These communities persist because their members are able to mitigate the effects of the market, by protecting their right to land from full commoditization, ensuring an adequate production of food, and avoiding the full monetarization of their subsistence needs. In addition, in order to secure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its settlements, the MST has integrated participation in institutional politics into its mobilization strategy. However, because of the declaration of President Lula's "adeus" at the end of 2008, the continuity of the traditional alliance between the MST and the PT (Workers' Party) is bound to become a major issue, especially at this moment that is expect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0.

Key Words: Brazil's Social Alternative Movement, MST(Landless Rural Workers' Movement), Land Struggle, Politization, Mobilization, Autonomy, Worker's Party / 브라질의 대안사회운동, MST(무토지 농민운동), 토지를 위한 투쟁, 정치화, 동원, 자율, 노동자당(PT)

논문투고일자: 2010. 01. 17

심사완료일자: 2010. 02. 03

게재확정일자: 2010. 02. 03

참고문헌

- 이영조(1993),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하 국가자율성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제26권 2호, pp. 269-290.
- 조돈문(2002), 「국가사회주의 실패와 대안체제의 가능성 - 평등과 효율성에 기초한 ‘민주적 시장사회주의’의 모색」, 『동향과 전망』, 제52권, pp. 98-127.
- 조종환(2002), 『21세기 스파르타쿠스』, 도서출판 갈무리.
- 조희연(2004),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도서출판 아르케.
- 조앙 페드로(2008), 「브라질의 계급투쟁 - 무토지 농민운동의 관점」, in 스테릴레-이탈리오 보론과의 인터뷰, 『세계의 발화지점들: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 Social Register/필맥, pp. 319-360.
- 자빈 케비어(1994), 『안토니오 그람시의 시민사회』, 이철규 역, 출판사 백의.
- Almeida, Lúcio Flávio de and Félix Luiz Sánchez(2000), “The Landless Workers’ Movement and Social Struggle against Neoliberalism,” i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27, No. 5, pp. 11-32.
- Álvarez, Sonia, Evelina Dagnino and Arturo Escobar(1998), “Introduction: The Cultural and politics in Latin American Social Movements,” in Sonia Álvarez, Evelina Dagnino and Arturo Escobar(eds.), *Cultural in Politics, Politics of Cultures: Re-visioning Latin American Social Movements*, Boulder: Westview Press, pp. 1-29.
- Betto, Frei(2003), “Zero Hunger in the Municipalities,” *Panama News*, April, pp. 13-26.
- Caldart, Roseli Slete(1997), *Educação em movimento: formação de educadoras e deucadores no MST*, Petrópolis: Vozes.
- Calderón, Fernando, Alejandro Piscitelli and José Luis Reyna(1992), “Social Movements: Actors, Theories, Expectations,” in Sonia

- Álvarez and Arturo Escobar(eds.), *The Making of Social movements in Latin America: Identity, Strategy, and Democracy*, Boulder: Westview Press, pp. 19-36.
- Carvalho, Horacio Martins de(2003), "Governo Lula e Contra-Reforma Agrária no Brasil," *Revista AduSP*, Abril, pp. 13-19.
- Chaves, Claudio M(2006), *Reforma Agrária?: Subversão Compartilhada*, São Paulo: Edit. Tactash.
- CPT(2007), *Pastoral da Terra*, Especial abril.
- Dagnino, Evelina(1998), "Culture, Citizenship, and Democracy: Changing Discourses and Practices of the Latin American Left," in Sonia Álvarez, Evelina Dagnino and Arturo Escobar(eds.), *Cultural in Politics, Politics of Cultures: Re-visioning Latin American Social Movements*, Boulder: Westview Press, pp. 33-63.
- Demmers, Jolle, Alex E. Fernández Jilberto and Barbara Hogenboom (eds.)(2001), *Miraculous Metamorphoses: The Neoliberalization of Latin American Populism*, London and New York: Zed Books.
- Fernandes, Bernardo Mançano(2000), *A formação do MST no Brasil*, Petrópolis: Vozes.
- _____ (2004), "Vinte anos do MST e a perspectiva da reforma agrária no Governo Lula," in Oliveira, Ariovaldo Umbelino de and Marta Inez Medeiros Marques(Org.), *O campo no século XXI: território de vida, de luta e de construção da justiça social*, São Paulo: Edit. Casa Amarela & Editora Paz e Terra, pp. 273-291.
- _____ (2005), "The Occupation as a Form of Access to Land in Brazil: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ontribution," in Sam Moyo and Paris Yeros(eds.), *Reclaiming Land: Resurgence of Rural Movements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London: Zed Books, pp. 311-340.
- _____ (2007), "O MST e a reforma agraria no Brasil," Paper

presented at the Encontro de Geógrafos de América Latina, Bogotá, March, pp. 26-30.

Gramsci, Antonio(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Quintin Hoare and Geoffrey Nowell Smith(ed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_____ (1975), “Notes sur Machiavel, sur la politique et sur le prince moderne,” in *Gramsci dans le texte*, Paris: Éditions Sociales, pp. 415-580.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2000), *Empi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 (2005),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London: Hamish Hamilton.

Harnecker, Marta(2003), *Landless people - Building a Socialmovement*, <http://www.libros.freewww.info/libros/H/Hardnecker,%20Marta%20-%20building%20a%20social%20movement.pdf>

Keck, Margaret E.(1992), *The Workers' Party and Democratization in Brazil*,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Kolb, Feliz(2007), *Protest and Opportunities: The Policital Outcomes of Social Movements*, Frankfurt/New York, Campus Verlag: Univ. of Chicago Press.

Hammond, John L.(2009), “Land Occupations, Violence, and the Politics of Agrarian Reform in Brazil,” i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Issue 167, Vol. 36, No. 4, July, pp. 156-177.

Hobsbawm, Eric(1995), *Age of Extremes: The Short Twentieth Century, 1914-91*, Vintage Books.

Favaro, Thomaz(2008), “O termômetro Latino,” Entrevista com Marta Lagos, in *Veja*, 2008.02.06.

Mainwaring, S.(1989), “Grassroots Popular Movements and the Struggle for Democracy: Nova Iguaçu,” in A. Stepan, *Democratizing Brazil: Problems of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pp. 168-204.
- Martins, José de Souza(2000), *Reforma Agrária: O Impossível Diálogo*, São Paulo: Editora Edusp.
- Mauro, Gilmar(2008), “A estratégia é superar o capital,” in PSOL(2008), *DEBATE Socialista*, No. 3, abril/julho, pp. 33-40.
- McAdam, Doug, Sidney Tarro and Charles Tilly(2001), *Dynamics of Conten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Adam, Doug, McCarthy John D. and Mayer N. Zald(1996),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liveira, Ariovaldo Umbelino de(2006), “A não reforma agrária do MDA/INCRA do governo Lula,” <http://www.landaction.org/gallery/AnaoReformaAgrariaNoGovernoLula.pdf>
- Petras, James(2002), “A Rose by Any Other Name? The Fragrance of Imperialism,”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Vol. 29, No. 2.
- _____(2005), “The Centrality of Peasant Movements in Latin America,” *Strategies of Struggle*, June 4/5, <http://www.counterpunch.org/petras06042005.html>
- _____(2006), “The Bankers Can Rest Easy - Evo Morales: All Growl, No Claws?,” *Counterpunch*, 4th January, <http://counterpunch.org/petras01042006.html>
- _____(2009), “Crisis in Latin America,” i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Issue 167, Vol. 36, No. 4, July, pp. 192-213.
- Petras, James and Henry Veltmeyer(2000), *Neoliberalism and Class Conflict in Latin America*, London and New York: Macmillan Press / St. Martin’s Press.
- _____(2001a), *Globalization Unmasked: Imperialism in the 21st Century*, London and Halifax: Zed Press / Fernwood Publishing.
- _____(2001b), *Brasil de Cardoso: expropriação de un pais*, Petrópolis: Editorial Vozes.

- _____ (2001c), "Are Latin American Peasant Movements Still a Force for Change? Some New Paradigms Revisited,"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Vol. 28, No. 2.
- _____ (2002), "The Peasantry and the State in Latin America: A Troubled Past, An Uncertain Future,"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Vol. 29, No. 3 & 4.
- _____ (2003a), *System in Crisis: The Dynamics of Free Market Capitalism*, London and Halifax: Zed Press / Fernwood Publishing.
- _____ (2003b), "Whither Lula's Brazil? Neo-Liberalism and 'Third Way' Ideology,"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Vol. 31, No. 1.
- _____ (2005), *Social Movements and State Power: Argentina, Brazil, Bolivia, Ecuador*, London: Pluto Press.
- Petras, James and Timothy F. Harding(2000), "Introduction," *Latin America Perspective*, Issue 114, Vol. 27, No. 5, September.
- Romano, Jorge Osvaldo(1994), "Poder, valores e conflito nos processos de organização no interior dos assentamentos: comentários a um debate," in Leonilde Medeiro, et al.(eds.), *Assentamentos rurais: uma visão multi-disciplinar*, São Paulo: UNESP, pp. 249-258.
- Sader, Emir(2005), "Taking Lula's Measure," *New Left Review*, (Second Series), No. 33, and "Lula: uma oportunidade perdida," 7/ar/libros/osal/sader.doc
- Santos, Boaventura de Sousa(2002), *Democratizar a democracia. Os caminhos da democracia participativa*, Rio de Janeiro, Cavilização Brasileira.
- Singer, Andre(2002), "A recente resurreição da economia solidária no Brasil," in Boaventura de Sousa Santos(ed.), *Produzir para viver: Os caminhos da produção não capitalista*, Rio de Janeiro: Civilização Brasileira, pp. 83-129.
- Stedile, João Pedro(2009), "MST: 25 anos de lutas resistências e conquistas," in *CPT Pastoral da Terra*, Comissão Pastoral da

- Terra, janeiro a março, Ano 34, No. 195.
- Tarrow, Sidney(2005a), *The New Transnational Activ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5b), *The New Transnational Activ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6),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ylor, Lewis(2005), "A Review of Latin American Peasants," in Tom Brass(editor),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Vol. 24, No. 3.
- Teubal, Miguel(2009), "Agrarian Reform and Social Movement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Latin America at the Dawn of the Twenty-first Century," i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Issue 167, Vol. 36, No. 4, July, pp. 9-20.
- Tilly, Charles(2004), *Social Movements 1768-2004*, Boulder(Colorado): Paradigm Publishers, LLC.
- Tilly, Charles and Sidney Tarrow(2007), *Contentious Politics*, Boulder (London): Paradigm Publishers.
- Vergara-Camus, Leandro(2009), "The Politics of the MST: Autonomous Rural Communities, the State, and Electoral Politics," i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Issue 167, Vol. 36, No. 4, July, pp. 178-191.
- Welch, Cliff(2009), "Camponeses: Brazil's Peasant Movement in Historical Perspective (1946-2006)," i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Issue 167, Vol. 36, No. 4, July, pp. 126-155.
- Wolford, Wendy(2003a), "Families, Fields, and Fighting for the Land: the Spatis, Fynamics of Contention in Rural Brazil," in *Mobiliza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8, pp. 201-215.
- _____ (2003b), "Producing Community: The MST and Land Reform Settlements in Brazil".